

## “세계적인 광학산업 메카를 향한 도약의 결의와 노력 필요”



(주)이오시스템 대표이사 이원승

한국광학기기협회가 창립 20주년을 맞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나간 20년 동안 불모지와 다름없던 우리나라의 광학산업이 오늘날과 같은 산업규모와 내용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모든 회원사들의 노력과 이를 뒷받침한 광학기기협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광학기기협회장으로 재임했던 7년의 기간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지만, 제 인생에서 제일 보람되고 의미 있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산자부 지원으로 시작하게 된 광학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그 당시 업계에서는 전문인력이 부족했고 사원과 엔지니어에 대한 재교육이 절실했습니다. 마침 산업계 대표들과 당시 산자부 장관과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광학산업의 중요성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감한 장관이 적극 검토를 약속했고 그 후에 이 사업이 성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인하대를 주관기관으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각 대학, 기업체, 연구소가 참여하여 많은 인력이 재교육되어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는 것을 볼 때 가슴이 뿌듯하고 우리나라 광학산업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든든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 Agenda의 핵심요소가 미래전략산업의 육성이고 또한 기업의 핵심경영 과제도 글로벌화와 신성장 동력의 확보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빈약한 환경 속에서 거론되는 신성장 동력은 BT, IT, NT와 같은 두뇌 집약산업이 될 것입니다. 물론 광학산업도 당연히 그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하이브리드화, 퓨전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전자와 광학이 결합이 되어 이루는 융합기술의 가치는 그 누구도 가늠하기 어려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배움의 도제 기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부가가치의 창조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회원사, 협회 모두가 또 다른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갖고 힘을 합쳐 협력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세계적인 광학산업의 메카로 도약한다는 결의와 노력이 필요하리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광학기기협회의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리며 회원사 모두의 사업번창과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크로즈업  
01010

# “희망찬 미래를 향해 더 큰 도약을 하는 협회와 회원사가 되기를...”



삼성테크윈(주) 대표이사 사장 이중구

친애하는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여러분!

희망의 무자년(戊子年) 새해를 맞아 한국 광학산업이 21세기 기반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해 오신 회원사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미 총회 결과로 알고 계시듯이 오늘은 협회 회장이 아닌 일반 회원의 일원으로서 한국광학기기협회의 창립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지면을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록 협회 회장직은 떠났지만 회원의 일원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향해 늘 협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종우 신임 회장께서는 저보다 더욱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갖추신 분이기에 우리 광학산업 발전을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박종우 신임 회장을 주축으로 하여 협회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더욱 알차게 협회를 꾸려 나가 주시기를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광학산업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정부와 산학연 관계자들이 뜻을 모아 광학기기협회를 설립한지도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광학산업은 괄목할 발전을 이룩했지만 아직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함께 지혜를 모아 이러한 도전을 잘 극복하고 성공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여러분!

정부에서도 R&D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광학산업이 포함된 차세대 산업기술 로드맵을 수립, R&D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여건을 만든 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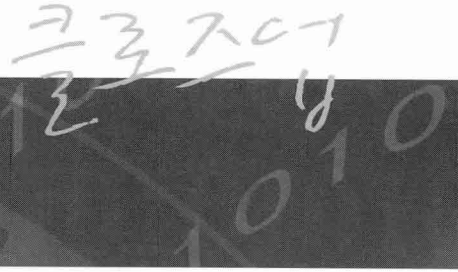
광학산업 로드맵의 수립은 지금까지 협회가 노력하고 염원해온 모든 일들이 모두 집약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협회뿐 아니라 국내 광학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큰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 로드맵에 광학산업이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협회에서 지속적인 정책건의와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협회의 노력과 회원사들의 염원이 더해져 앞으로 더 좋은 성과가 계속해서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협회 창립 20주년을 계기로 국내 광학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회원사 모두의 사업 번창과 함께 협회도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학회 · 협회가 힘을 모아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국광학회 회장 이민희

한국광학기기협회의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국내 광학산업 및 광학산업계의 육성과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광학기기협회가 국내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광학산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데 대하여 광학을 전공하는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 공업국으로 발돋움하고 전자, 중공업산업 등에 국력을 기울여 오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 보다는 당시 사회기반을 구축하는 노동집약형 산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국내산업은 점차적으로 후진성을 탈피하면서 선진 기술 경쟁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연구 개발 보다는 선진 기술 도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당시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 초에 발명된 레이저 기술의 발달로 광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광기술은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광산업은 카메라를 생산하는 한 두 회사가 광산업의 명맥을 유지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여건 속에 1980년대 말 국내의 광학산업 육성과 산업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광학기기협회가 창립되었습니다. 동시에 학계에서는 국내 광산업체의 증가, 광학 및 레이저의 산업적 연구와 학술 교류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한국물리학회, 대한전기학회, 대한전자공학회 등에서 광학 관련 연구 및 학술 활동을 하던 학자들이 뜻을 모아 한국광학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광학회는 연간 학술연구발표회 2회, 분과별 학술발표회 6회 등 광학분야의 학술연구 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ICO, CLEO/PR 등 국제학술회의를 유치하여 국제적인 학술 교류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광학산업체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학술발표회와 동시에 산업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광학기기협회와 공동으로 광산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연·산 교류를 활성화하고 광산업체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에 출범한 새 정부는 「선진일류국가」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미래 첨단기술중에 광학기술은 핵심 기술이 될 것이며, 빛을 바탕으로,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초고속의 사회가 전개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한국광학회는 한국광학기기협회와 함께 국내외 광학관련 산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능동적으로 산업체와 유대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한국광학기기협회의 창립 2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국내외 광학관련 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